

시즌6
제9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0] 과학 : 체온 유지에 관여하는 갑상샘 호르몬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갑상샘 호르몬

물질대사, 갑상샘, 갑상샘 호르몬, 소포, 내강, 교질, 타이로신, 아이오딘, T3, T4, 소포 세포, 타이로글로불린, 1 아이오딘 타이로신(MIT), 2 아이오딘 타이로신(DIT), 타이로글로불린-호르몬 복합체, 리소좀, 나트륨-칼륨 펌프, rT3,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능동 수송, ATP, ATP 효소, ADP, 인산, 시상 하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TRH), 뇌하수체, 갑상샘 자극 호르몬(T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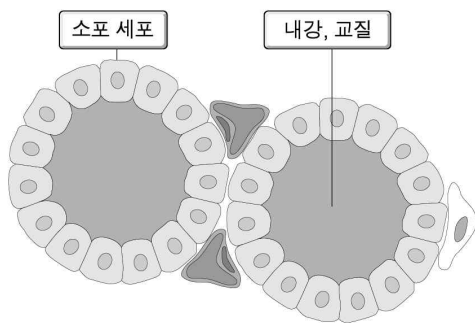
* 지문 분석

문단1 :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샘 호르몬

- 1) 인간은 대부분의 체열을 물질대사로부터 얻는 내온 동물이다. **물질대사**란 체내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자 에너지 공급 및 방출 작용을 말한다.
⇒ 인간은 체내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 2) '물질대사를 통한 체온 조절'에는 목 앞부분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 **갑상샘**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이 주로 관여한다.
⇒ 그렇다.

문단2 : 갑상샘의 구조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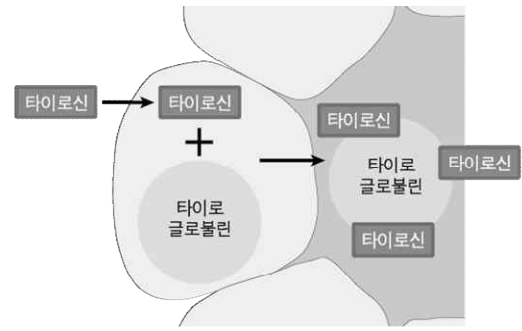
- 1) 갑상샘은 닫힌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인 소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포**는 다수의 소포 세포들이 결합하여 안쪽에 공간을 형성하는 모양을 띠며, **안쪽 공간인 내강**은 **교질**(→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입자가 원자나 저분자보다는 커서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고 확산 속도가 느린 물질)로 채워져 있다.
⇒ 이런 모양을 떠올리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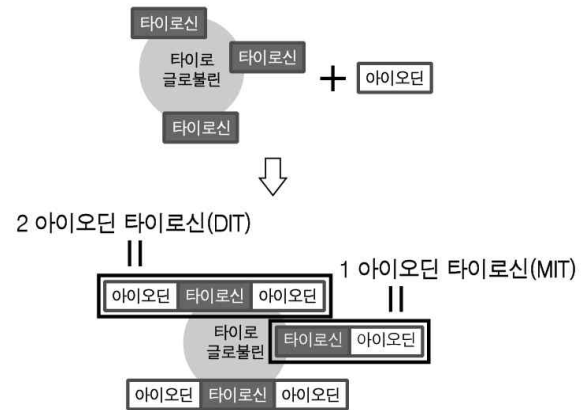
- 2) 소포에서는 체내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과 음식으로부터 흡수되는 **아이오딘**을 재료로 하여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샘 호르몬인 **T3**과 **T4**가 합성된다.
⇒ '물질대사를 통한 체온 조절'에는 T3, T4가 관여하는데, T3, T4는 '타이로신'과 '아이오딘'을 재료로 만들어진단다.

문단3 : T3과 T4의 합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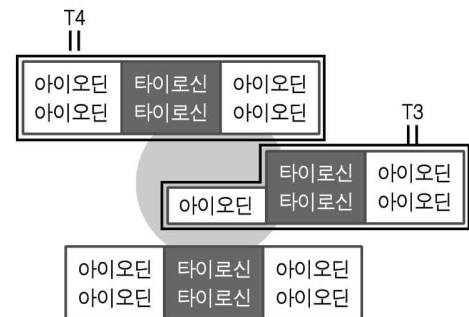
- 1) 타이로신은 혈액으로부터 **소포 세포**로 흡수되는데, 소포 세포에서 생성되는 고분자 단백질인 **타이로글로불린**과 결합한 후 내강으로 이동하여 **교질을 이룬다**.
⇒ 비유하자면 타이로글로불린은 일종의 창고인 셈이다. 소포 세포에서 생성된 '타이로글로불린'은 혈액으로부터 소포 세포로 흡수된 '타이로신'과 결합하여 내강으로 이동한다.



- 2) [음식으로부터 흡수되어] 혈액으로부터 전해진 아이오딘도 **소포 세포**를 관통하여 **교질을 이루는 한 성분**이 된다.
⇒ 그렇다. 교질을 이루는 성분으로는 '타이로글로불린과 결합된 타이로신'과 '아이오딘' 등이 있는 거다.
- 3) 타이로글로불린과 결합된 상태의 타이로신은 먼저 교질에서 **아이오딘 1개와 결합하여 '1 아이오딘 타이로신(MIT)'**을, **아이오딘 2개와 결합하여 '2 아이오딘 타이로신(DIT)'**을 형성한다.
⇒ 따라서 'MIT'와 'DIT'는 '타이로글로불린'에 결합된 상태로 교질에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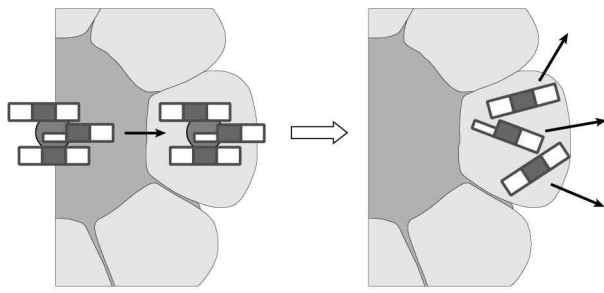


- 4) 다시 1개의 MIT와 1개의 DIT가 결합하여 **T3**이, 2개의 DIT가 서로 결합하여 **T4**가 형성된다. 보통 T3에 비해 T4가 9배 정도 많이 형성된다.
⇒ T3은 '아이오딘' 세 개, T4는 '아이오딘' 네 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차이점이겠다.



문단4 : T3과 T4의 분비 과정과 기능

- 1) 이렇게 T3 혹은 T4에 타이로글로불린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띤 **타이로글로불린-호르몬 복합체**가 형성되면, 이 복합체는 **T3이나 T4**를 인체 곳곳으로 전하기 위해 먼저 소포 세포에 흡수[→ 내강에서 소포 세포로 이동]된다. 그러면 소포 세포 내부의 소기관인 **리소좀**에서 타이로글로불린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다.
⇒ 복합체인 상태로는 소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호르몬이 소포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소포 세포로 이동해 '타이로글로불린'과 분리되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서 너무 큰 몸집을 줄여야만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2) [타이로글로불린과] 분리된 후에 남은 T3과 T4는 비로소 소포 세포의 외막을 자유로이 통과하여 혈액으로 확산된다.

⇒ 그렇다. 몸집이 작아진 뒤에는 T3, T4는 소포 세포의 외막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3) 인체의 각 세포로 전달된 T3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인 나트륨-칼륨 펌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 T3의 핵심 기능이다. 문단1-2)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물질대사를 통한 체온 조절’에 관여한다고 했으니, 나트륨-칼륨 펌프 활성화가 이와 관련 있을 게다.

4) T4는 물질대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오딘 하나가 제거되면서 T3으로 전환되고, 에너지 소모[→ 물질 대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이 없는 rT3으로 전환된다. rT3은 혈액에 머물다가 활발한 물질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T3으로 전환된다.

⇒ T4는 일종의 비축분인 셈이겠다.

문단5 : 나트륨-칼륨 펌프의 기능

1) 세포에서 나트륨-칼륨 펌프는 세포 안의 나트륨 양이온을 세포 밖으로, 세포 밖의 칼륨 양이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세포막 안팎의 전위차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참조] ‘나트륨-칼륨 펌프’는 세 개의 나트륨 양이온을 세포 밖으로, 두 개의 칼륨 양이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세포 내부가 외부에 비해 -70mV 정도의 전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이때 양이온들[→ 각각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은 능동 수송에 의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각각 ‘세포 안에서 밖으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강제적으로 옮겨진다. 능동 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세포 내부에서 에너지를 증개하는 물질인 ATP로부터 공급된다.

[Rew] 문단1-1)을 떠올려 보자. ‘에너지 공급 작용’은 물질대사의 일종이다. 그러니 ATP로부터 세포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과정은 체온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

[참조] 용질을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확산’은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하지만 ‘능동 수송’은 반대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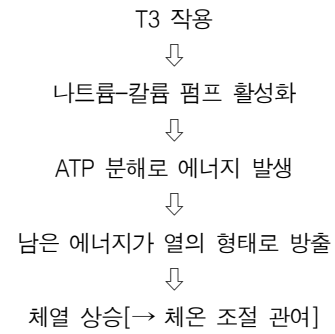
3) T3의 작용에 의해 나트륨-칼륨 펌프가 활성화되면 펌프에 결합되어 있는 ATP 효소가 ATP를 ADP와 인산으로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 ‘능동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다.

4) 이 에너지의 20% 정도는 능동 수송에 이용되며 나머지는 열의 형태로 방출되어 체온의 상승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주목] 문단1-2)의 ‘물질대사를 통한 체온 조절’ 원리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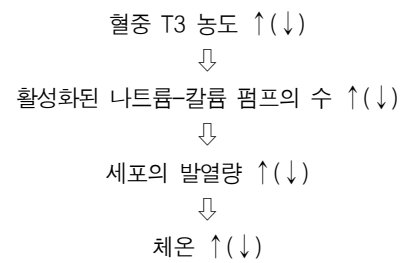
⇒ ATP로부터 공급된 에너지의 80% 정도는 체온 조절에 관여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T3이 나트륨-칼륨 펌프를 많이 활성화할수록 방출되는 열도 증가할 게다.



문단6 : 혈중 T3 농도 조절을 통한 체온 유지 과정

1)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의 발열량은 혈중 T3 농도에 비례하는, 활성화된 나트륨-칼륨 펌프의 수에 비례한다.

⇒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2) 따라서 체온이 유지되려면 [활성화된 나트륨-칼륨 펌프의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혈중 T3 농도가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당연한 얘기다.

3) 간뇌의 시상 하부는 혈중 T3 농도가 낮은 상태임을 감지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TRH)을 분비하고, T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TSH)이 분비되도록 작용한다. 이어 TSH가 소포 세포를 자극하면 갑상샘 호르몬[→ T3, T4]이 분비된다.

⇒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대로 읽어 주면 되겠다.

[참조] 왜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 호르몬을 분비하나 싶겠지만, 시상 하부는 일종의 ‘호르몬 통제실’이다. 낮은 T3 농도를 감지하면 시상 하부가 뇌하수체에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게다.

4) 그렇게 혈중 T3 농도가 높아지면 이를 감지한 시상 하부는 다시 TRH의 분비량을 줄여 TSH의 분비량 감소를 유도한다.

[주목] ‘혈중 T3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혈중 T3 농도’는 어디까지나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혈중 T3 농도’가 조정되는 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음성 피드백’이라 한다.



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혈중 T3 농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며, 체온 역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 그렇겠다.

[21~23] 현대시 : (가) 신석정, 「밤의 노래」

* 작품 평가

「밤의 노래」라는 제목을 고려하면 밤처럼 어두운 세월을 시적 상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 연의 물음이나 진술에 대해 다음 연에서 응답하거나 호응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시적 상황과 그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다. 이 시가 한국 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되고 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에 창작되었음을 고려하여 감상해 보자.

* 작품 분석

어둠이 범람하는 지역에

도도히 범람하는[→ 같은 시어의 반복] 처참한 지역에,

⇒ 같은 시어의 반복으로 어둠의 범람과 그 영향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꾸만 잠송들은 울고

목 놓고 잠송들은 자꾸만 울고[→ 유사한 시구의 반복]

찌눌린[→ 짓눌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다.] 가슴이라 숨결도 영영 동결되어 가는가?

⇒ 제1연의 시적 상황은 어둠이 넘쳐 나는 지역에서 잠송들이 울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 후의 비참한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눌러 있는 가슴 때문에 숨결마저 동결되어 간다. 숨결의 동결은 분단 상황의 고착화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사람들의 열정은 억압당하고 분단 상황은 이대로 고착되어 갈 것만 같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설마 그래서야 될 리라구!>

⇒ 제2연은 제1연의 물음에 대한 반응으로, 가슴이 영영 동결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분단 상황이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시궁창 같은 세월[→ 더러운, 즉 정의롭지 못한 세월]을 꽃도 머물러,

⇒ 시궁창 속에도 꽃잎이 떠다닐 수 있는 것처럼, 불의의 시대일지라도 ‘꽃’이 환기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꽃은 뒤따라 오는 시행에서 ‘뜨거운 가슴’을 문지르는 ‘꽃’으로 연결된다.

그대로 멈출 수 없는 작은 핏줄에

⇒ 동결되어 가는 숨결과는 대조적으로, 작은 핏줄 속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즉 현실을 극복하려는 작은 의지가 살아 있는 것이다.

핏줄 속에 수떨이는[→ 수다스럽게 떠드는] 가느다란 소리 있어,

⇒ 핏줄 속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가느다랗다.

아직은 뜨거운 가슴[→ 아직은 식지 않은, 즉 열정을 지닌 가슴이다.]

을 서로서로

꽃으로 문지르는가?

⇒ ‘꽃’은 첫 행과 이어지면서 불의의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따라서 ‘꽃’으로 문지른다는 것은 희망으로 가슴을 물들이고 서로를 고무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3연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불의의 시대[→ ‘시궁창 같은 세월’]에도 희망[→ ‘꽃’]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약하지만 핏줄 속에는 여전히 약동하는 생명력[→ ‘수떨이는’, ‘가느다란 소리’]이 살아 있다. 그러나, 전쟁 후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서로의 열정 어린 가슴[→ ‘뜨거운 가슴’] 속에서 희망을 확인하고, 그 희망으로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는가?[→ ‘꽃으로 문지르는가?']

<아예 그대로 찾아들 순 없는 것이여!>

⇒ 제4연에서는 제3연의 물음에 대해, 우리가 왜 꽃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 대답하는 것처럼 말한다. 즉, 서로의 가슴에 희망을 복돋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행동이 현실에 패배주의적으로 순응하는 것[→ ‘그대로 찾아드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몸서리나는 어둔 밤을 비바람 미치게 물려드는데,

번갯불 사이사이 천둥소리 들려오고,

⇒ 그냥 밤도 아니고 몸서리나게 어두운 밤이다. 거기에 비바람이 물려들고, 번개와 천둥이 계속 친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머언 먼 천둥소리 산을 넘어 들려오고,

새벽을 잉태하는 빠져린 신음 소리,

⇒ 이렇게 두렵고 엄혹한 밤에 새벽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빠져린 신음이 날 수밖에 없겠다.

우리 가슴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

⇒ 어두운 밤, 숨결도 동결되어 가는 상황에서 파도가 밀려든다. ‘우리 가슴’에 끝없이 밀려오는 새 시대를 향한 열정을 ‘파도 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 제5연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의 역사가 압축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기까지의 역사를, 시인은 ‘비바람’이나 ‘천둥소리’,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음 소리’와 ‘파도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귀에 젖은 노랫소리 아닌가?>

⇒ 제6연에서는 제5연에 간추려진 질곡의 역사에 대해 ‘그대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대들’은 질곡의 역사를 거쳐 왔던 동포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질곡의 역사를 되새기는 독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앞에서 말한 ‘소리’들이 ‘귀에 젖은 노랫소리 아닌가?’라고 묻는다. 즉 질곡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경험한 모든 소리들을 오히려 귀에 익숙해진 희망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질곡의 역사를 되새기는 동포나 독자들에게, 그런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노랫소리’]를 잊지 않았음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은 ‘그래도 우리는 온갖 시련을 이겨 온 저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동포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29~32] 예술 : 추상 표현주의와 잭슨 폴록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회화 - 추상 표현주의

회화, 현대성, 추상 표현주의, 드리핑 기법, 잭슨 폴록, 액션 페인팅 기법, 「연보랏빛 안개 넘버 1」, 올 오버 페인팅, 전면 균질 회화, 명암의 융합 현상, 자기 유사성, 통제된 우연

* 지문 분석

문단1 : 추상 표현주의의 등장

- 1) 전통적으로 **회화**는 이성¹⁾에 따라 창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제하는 필연의 예술이었다. 거기[→ ‘전통적 회화’]에 ‘우연’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었고 그림 속의 모든 요소들은 필수 불가결했다.
⇒ ‘전통적 회화’에서는 그림 속 모든 요소들이 ‘작가’의 이성²⁾에 따라 선택되어 ‘꼭 있어야 하는’ 당위적인 것들이라는 얘기다.
- 2)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화가들은 정형화된 형태를 추구하는 전통적 표현 수단들로는 **현대성**을 특징짓는 ‘만연한 우려와 공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 끔찍한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이성’에 의한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느낀 ‘만연한 우려와 공포’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표현 수단이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했을 테고 ……
- 3) 기괴한 무정형의 양상을 빌리거나 격정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수단들을 동원하는 **추상 표현주의**가 등장한 이유이다.
⇒ …… 그 결과 정해진 형태가 없는 ‘무정형’의 ‘격정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수단을 사용한 작품이 등장했다는 얘기다.
- 4) 특히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물감을 이리저리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 즉흥적인 표현 수단]을 활용한 **잭슨 폴록**의 작품은 무의식의 흐름이나 우연적 요소에 의한 무질서가 예술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맥락 짚기] 1)과 대조하면서 읽어야겠다. ‘잭슨 폴록’은 ‘작가의 의도와 의도의 산물이 아닌 작품’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제시한 거다.

문단2 : 폴록의 ‘액션 페인팅 기법’

- 1)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다소 혼잡한 표현은 흔히 **화가의 정신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 뭐 그럴 것 같다. ‘혼잡한 표현’이 화가의 어떤 정신성[→ 가령, 억압, 분노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거다.
- 2) 그런데 폴록이 강조한 것은 **억압된 내면**이나 **무의식**의 표현을 넘어 행위 그 자체였다.
[주목] 중요하다. 1)과 같이 ‘복잡한 이 선들에 담긴 화가의 정신 세계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들보다는 작품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3) 페인트가 든 통을 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막대기나 모종삽, 마른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바닥에 놓인 화포(=유화를 그릴 때 쓰는 천)에 자유롭게 흠뿌리는 ‘**액션 페인팅**’ 기법은 하나의 퍼포먼스[→ ‘행위’]였고 화포에 남은 것은 그 순간의 우연한 흔적이었다.
⇒ 완성된 작품은 그저 행위의 ‘흔적’일 뿐, 정말 중요한 건 작품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라는 얘기다. 괜히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문단3 : 폴록의 ‘올 오버 페인팅’

- 1) 우리는 선의 얽힘이 조밀한 「**연보랏빛 안개 넘버 1**」과 같은 그의 작품에서 행위를 떠올리곤 하는데[→ 선의 얽힘의 조밀함은 행위의 흔적

일 뿐이다.], 이는 폴록의 작품이 지닌 ‘올 오버 페인팅’으로서의 특징 때문이다.

⇒ 어떤 느낌인지 직접 보고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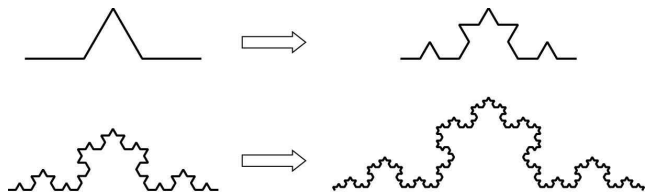
- 2) 「**올 오버 페인팅**」이란 **전면(全面) 균질 회화**, 즉 평면적이고[→ 깊이감이 없고] 비구상적(非具象的)[→ 대상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중심이나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고 테두리까지 균질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작품을 말한다.
⇒ 화면 가득 균질하게 물감이 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갖는 특징들이겠다.
- 3)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에 주목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우연히 야기된 선의 자취를 따라 움직임[→ 행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 그렇단다.
- 4) 그래서 감상자는 선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 폴록의 작품에서 ‘선’은 ‘무언가를 재현하는 선’이 아니라 작가의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선’이고, 따라서 감상자는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문단4 : 폴록의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 1) 그런데 폴록의 작품이 온전히 우연에 의존한 산물이라 보기는 힘들다.
[주목] 집중해야겠다. 지금까지 ‘우연’ 이야기를 실컷 해 놓고, 갑자기 ‘우연에 의존한 산물’이라 보기 힘들다니 ……
- 2) 아무 질서도 없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은 사실 **드리핑의 속도와 각도에 따라 점과 선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익히는[→ 의도된 우연] **흑독한 사전 훈련**과 반복적인 사후 수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 ‘의도된 우연’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온전히 우연에 의존한 산물’이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 3)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의도적인 조형적 요소**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보랏빛 안개 넘버 1」에는 감상자가 간단하게 인지하기는 힘들지만, 커다란 검은 X선이 있고 양 끝이 곡선으로 이어진 듯 보여 나비 모양을 띤 조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심지어 자세히 살펴보면 ‘화가의 의도’에 의한 형상 역시 발견할 수 있단다.
- 4) 이[→ 의도적인 조형적 요소]는 폴록이 색선들 간의 **명암 차이**로 인해 돌출되어 보이기도 하고 후퇴되어 보이기도 하는 「**명암의 융합 현상**」을 활용하여 구현[→ 작가의 의도]하였다.
⇒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
- 5) 이 작품에서의 나비 형상은 은연중에 감상자에게 역동성과 리듬감을 전한다.
⇒ …… 이를 통해 ‘우연적 요소에 의한 무질서’로 가득 차 보이는 작품도 감상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겠다.
- 6) 한편 이 작품에는 ‘자기 유사성’에 기초한 조형적 요소도 담겨 있다.

‘자기 유사성’이란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모양이나 조개껍데기의 무늬 등과 같이 미세한 부분들이 큰 부분들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띠며 반복되는 양상을 말한다.

⇒ 이런 걸 떠올리면 된다.



7) ‘자기 유사성’에 기초한 조형적 요소들의 형상은 온전히 우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폴록은 최소한 ‘자기 유사성’에 기초한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채[→ 작가의 의도] 작품 활동에 임했다.

⇒ 따라서 폴록의 작품들이 결코 ‘온전히 우연에 의존한 산물’이라 말하기 힘들다는 것일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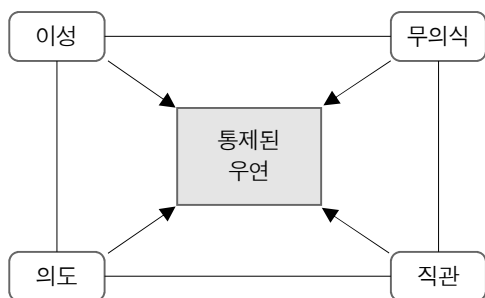
문단5 : 잭슨 폴록 작품의 의의

1) 폴록의 작품이 갖는 특별함은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화가의 숙련된 경험과 변죽이는 직관이 우연과 겹쳐져 혼란 속의 규칙[→ 통제된 우연]을 만들어 신비하고 기괴한 느낌을 전하는 것이다.

⇒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다.

2) 폴록이 이성과 무의식, 의도와 우연의 절묘한 균형을 통해 새로운 조형 원리를 완성했다는 평가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33~38] 사회 융합(주제 통합형)

: 법실증주의와 '법률의 흠결'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법실증주의

실증주의, 자연법사상, 자연법, 실정법, 법실증주의, 법률 실증주의, 엘리네크, 승인,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하트, 재판, 법률의 흠결, 신의 성실의 원칙, 베르크봄,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 법현실주의자들, 사법, 드워킨, 법치주의, 법 원리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실증주의

- 1) 19세기에 나타난 **실증주의**는 초경험적인 것 [→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형이상학적 사변을 배격하고, 경험적으로 주어진 탐구 가능한 사실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철학적 경향을 말한다.

⇒ 한마디로 '실증주의'는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논하자는 입장이었다.

- 2) 실증주의는 과학만능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으나, ...
⇒ 이 세상이 전부 경험 가능한 과학적 사실들로 분해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 3) 법학의 영역에서는 법실증주의의 기초가 되어 **자연법사상**과 대립하는 법사상의 정착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백락 짚기] '법실증주의'가 실증주의를 어떻게 법학의 영역에서 수용하였는지, 그리고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이 어떻게 대립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문단2 : 법실증주의

- 1)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을 초월하는 [→ 현실의 법을 초월하는, 즉 초경험적인] **자연법**, 즉 도덕이나 정의(正義)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법 개념을 배제하고, 현실의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 경험적으로 주어진 탐구 가능한 법 개념]인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백락 짚기] 사실상 문단1-1)의 서술을 '철학의 영역'에서 '법학의 영역'으로 옮겨 온 것과 다르지 않다.

⇒ '법실증주의'에게는 '실정법'만이 법이다. 이들에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적 관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법은 법이 아니다. 법과 도덕은 구분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조항을 갖춘 법률인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한다.

- 2) 넓게 보면 실정법에 관한 경험적 사실 전반을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만, 현대 법학의 지형에서 **법실증주의**는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정치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인 **법률 실증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사회에서 실정법과 관련한 여러 문제나 상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영역을 제외하고, 즉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의 문구 자체에만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 바로 '법률 실증주의'였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법실증주의를 법률 실증주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게다.

[백락 짚기] '법실증주의'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법률 실증주의'로 좁히려나 보다.

- 3) 이렇게 **법실증주의**를 좁게 보더라도 [→ '법률 실증주의'로만 보더라도] 법실증주의자들 간에는 법의 효력에 대한 근거를 두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입장 차이들이 존재한다.

[백락 짚기] "법의 효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살펴보는 게다. 이후에 소개될 입장들은 당연히 법실증주의이면서 '법률 실증주의'에 속하는 입장들일 게다.

문단3 : 엘리네크

- 1) 법은 도덕과 구분되지만

⇒ 법과 도덕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건 '법실증주의'가 아니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문단2-1)의 자연법사상에서나 관심을 가지는 '형이상학적 법 개념'이다.

- 2)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라고 보는 **엘리네크**는, 법의 효력은 평균적인 국민들이 그 법이 효력을 지닌다는 확신을 가져서 '승인'될 때에 보장된다고 보았다.

[백락 짚기] 문단2-3)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에 대한 '엘리네크'의 대답이다. '법의 효력의 근거'는 국민들의 '승인'에 있다는 얘기다.

⇒ '엘리네크'에 따르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률 실증주의자'로서 '자연법' [→ 도덕, 정의(正義) 등]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만 보면 자연법의 영역을 구체적인 문구로 제정해 놓은 것들만 실정법이라는 생각이다.

- 3) 이때의 **승인**은 중단 없는 [→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이어질] 사실적 관행으로 계속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부여된 사회 심리적 힘이다. 엘리네크는 이렇게 법이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힘 [→ '승인'에 의해 법이 효력을 갖게 하는 힘]을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이라 불렀다.

⇒ 쉽게 말해서, 평균적인 국민들이 '어떤 법률'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목] 한마디로 법률은 국민들이 그것이 '사실로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4)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그는 혁명이나 군사 반란과 같이 기존 법 상태를 전복하는 상황에 대해, 그러한 상황이 사실로 벌어졌고

[백락 짚기]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에 의해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는 예시였다.

⇒ '기존 법 상태의 전복'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벌어졌을 때

- 5) 그에 대해 국민이 승인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법 상태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 '기존 법 상태의 전복'을 평균적인 국민들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승인'할 때야 '기존 법 상태의 전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래야만 '새로운 법 상태'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 6) 그렇게 새로운 법 상태가 시작되면 법학은 뒤늦게야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변론하여 증명해 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 법학은 이미 국민에 의해 승인된 '법 상태'를 사후 승인할 뿐이라는 게 '엘리네크'의 주장이었다.

문단4 : 하트

- 1) 이와 달리 **하트**는 적정한 입법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면 그 자체로 [→ 국민의 '승인' 따위가 없어도] 효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백락 짚기] 문단2-3)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에 대한 '하트'의 대답이다. '엘리네크'의 대답과 대비하면서 읽어 나가야겠다.

⇒ '하트'에 따르면 '법의 효력의 근거'는 '제정 절차'에 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만 했다면 그 법이 국민들에게 승인되는지, 승인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 2) 하트에 따르면 법과 도덕 간에는 논리적인 필연 관계가 없어서 법을 정의 내릴 때 도덕적 요소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다.

⇒ '엘리네크'가 '법의 내용' [→ '도덕의 최소한']과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 '승인']에 주목했다면, '하트'는 법의 형식 [→ '제정 절차']에만 주목했다.

3) 그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법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이 정해진 제정 절차를 거쳤으면 그만이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규범이 법이냐는 문제와 어떤 규범이 좋은 법이냐는 문제는 별개가 된다. 즉,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다.

⇒ 설령 법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악하더라도, 그 ‘형식’이 타당하다면 그 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반대로 문단3의 ‘엘리네크’는 국민들의 승인을 효력의 근거로 삼는 만큼,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볼 게다. 국민들이 승인할 리도 없고 무엇보다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4) 다만 하트는 국민들이 악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법의 효력과 준수 의무는 구별된다고 보고 법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목] ‘법의 효력’을 논할 때 도덕적 요소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지만, ‘법의 준수 의무’를 논할 때는 도덕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엘리네크’의 입장과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겠다.

	엘리네크	하트
법의 효력	악법은 효력 없음	‘제정 절차’를 거친 악법은 효력 있음
법의 준수	∴ 악법에 대한 준수 의무 없음	악법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 → 준수 의무 없음

5) 한편 하트는 실정법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와 재판 사이에도 논리적인 필연 관계가 없다고 보아, ……

⇒ 한마디로 ‘어떤 법을 법으로 볼 것인가?’와 ‘어떤 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로 보아 ……

6) …… 법률의 문언(= 문장 속의 어구)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였다[→ 판결을 내릴 때 실정법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그렇다. 물론 ‘법률의 문언만으로 분명한 영역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을 게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법률의 흠결

1) **‘법률의 흠결’**은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나 계획에 반하는 불완전성을 말한다. 적용될 사안에 대해 적합한 법 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다.

⇒ 법률에 다룰 수 없는 공백이 있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를 ‘법률의 흠결’이라 한단다.

[맥락 짚기] (가)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 역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다.

2) 예컨대 권리나 의무에 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와 같은 법률도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만을 담고 있어서[→ 내용이 불확정적이어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권리나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 자체는 당연히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신의인지, 어떤 이행이 불성실한 이행인지와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공백이 있는 만큼 흠결이 있다는 게다.

문단2 : ‘법률의 흠결’을 부정하는 베르크봄

1) 극단적인 법실증주의자인 베르크봄은 법에서의 흠결은 실정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법관 등]에 있기에, 보충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 왜 극단적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법률의 흠결’은 애당초 실정법

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베르크봄’의 주장이다.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 법관에게 흠결이 있다는 얘기가.

2) 그에 따르면 일반 조항이나 불확정적인 조항들은 애초부터 불완전성이 계획된 것이므로[→ 입법자가 의도한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흠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베르크봄’에 따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의 불확정성 역시 의도된 것이다. 현실의 모든 측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3) 또한 베르크봄은 그 외의 불완전한 법률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적용될 사안에 대해 적합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관이 헌법을 포함한 법체계 전체의 계획을 고려하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법관의 지식을 보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입법자가 의도한 법률의 흠결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의 흠결
애초에 의도된 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법률이 아니라 법관의 지식이 보충되어야 함
∴ 사실상 실정법에는 흠결이 없음	

4) 법관의 직무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구성된 법 개념의 피라미드[→ ‘헌법을 포함한 법체계 전체의 계획’]로부터 자신이 맡은 사건에 적용할 판단 규칙을 도출하는 형식 논리적이며 비정치적인 작업인 것이다.

⇒ 따라서 ‘베르크봄’에 따르면 법관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법률의 문언에만 충실하면 된다. 법 개념의 피라미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다. ‘흠결’이 존재하지 않으니 ‘재량’을 발휘할 필요도 없는 거다.

[Rew] (가)의 문단4-6)에서 ‘하트’가 제한적으로나마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5) 이와 같이 실정법에 흠결이 없다고 보는 극단적인 법실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토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근대 국가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 그렇다. 실정법에 흠결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니 법관의 재량, 즉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을 테다.

문단3 : ‘법률의 흠결’을 인정하는 입장

1) 그런데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현실의 법[→ 실정법]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맥락 짚기] 이걸 ‘법실증주의’나 ‘자연법사상’에 해당하는 특정 관점의 진술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2) 그래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 실정법]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

⇒ 따라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정법을 그대로 해석하는 데에 충실하되 ……

3) …… 흠결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 …… ‘법률의 흠결’이 있을 때만 재량을 발휘한다.

[Rew] 여기까지는 (가)의 문단4-6)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과 다르지 않다.

4) 이와 달리 법현실주의자들은 본래 법은 불확정적이며[→ 애초에 법은 ‘흠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을 적용하는 과정인 사법에는 창조적인 성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목] 2)의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이’ 예외적으로 법률의 흠결을 인정한 것과 구분해서 이해해야겠다.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	법현실주의자들
공통점	법실증주의 :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함	
차이점	법의 '흠결'은 예외적 ↓ 사법에서의 법관의 재량도 예외적	법의 '흠결'은 일반적 ↓ 사법에서의 법관의 재량도 일반적[→ 창조적인 성격]

5) 그들은 법관들이 법의 흠결을 온전히 메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언의 논리적인 해석에만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 '법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법관의 재량으로 법의 흠결 자체를 메우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6) 결과를 예견하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사회적 효용 등도 고려하여 최선의 해석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주목] 애초부터 재판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관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률의 흠결'을 그때그때마다 달리 메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이기도 하다면

[Rew] 문단2-5)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정책적 판단이나 사회적 효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석을 내리라는 것은, 맘대로 해석하지는 말고 객관적이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내리라는 말이다.

문단4 : 드워킨의 해석

1) 자연법사상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드워킨은

[맥락 짚기] '드워킨'은 지금까지의 입장들과 달리 실정법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법 개념인 '자연법'을 수용한 입장이다.

2) 법실증주의가 법률의 흠결에 대해 법관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며 법관에 부여된 재량은 행위에 대해 사후에 책임을 지우는 사후 입법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Rew]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의' '사법', 즉 문단3-2), 3)에 대한 비판이다.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 무엇보다도 사후 입법의 문제를 낳는다. 사후 입법은 행위가 먼저 발생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입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받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한,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다.

3) 그리고 법현실주의가 용인하는 정책적 판단이나 결과의 고려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Rew] '법현실주의자들의' 사법, 즉 문단3-6)에 대한 비판이다.

4) 그는 법관이 법률의 문언이나 판례의 법리뿐 아니라 법질서에 내재된 법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흠결을 메우면서도[→ 이와 달리 '법률의 흠결'을 해결할 수도 있고] 자의적이지 않은 해석을[→ '법현실주의'와 달리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법 원리란 정의나 공정성, 또는 도덕성의 차원에서 요청되는 기준[→ 자연법사상]을 말한다.

⇒ '법률의 흠결'에 대한 '드워킨'의 해결책이다. '자연법사상'을 계승한 만큼 법률의 문언[→ 실정법]에서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법 개념을 동원하면 비로소 법률의 흠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43~45] 현대소설 : 임철우, 「동행」

* 수록 지문 평가

작품의 등장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또 다른 등장인물을 ‘너’라고 지칭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너’는 오일팔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다가 수배를 당해 피해 다니는 중이고, ‘나’는 오일팔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간다. 서술자인 ‘나’의 심리 상태에 감상의 초점을 두되,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군부 독재 시대의 엄혹한 사회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 수록 지문 분석

개찰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앞서서 개찰구를 나섰다. 우리는 각자 표를 따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기를 내가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만일의 경우에는…… 하고 넌 말했다.[→ 표를 한 사람이 가지고 동행하다가 개찰구에서 검문이라도 당할 경우 일행까지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가 피해를 입을까 봐 ‘너’가 염려해서 한 행동이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기차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화단 귀퉁이의 벽돌 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화단엔 말라붙은 썰비어가 드문드문 꽃혀 있었다.[→ 계절적인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반대편 플랫폼에 멈추어 있는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무심한 눈길로 이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너머로 하늘은 한층 짙은 잿빛으로 무겁게 걸려 있었다.

미안하다. 자꾸 심부름을 시켜서…….[→ ‘너’가 한 말이다.]

문득 내가 말했다.

미안하긴. 짜식. 새삼스럽잖아.[→ 서술자인 ‘나’의 대답이다.]

나는 건성으로 웃음을 흘리다가 갑자기 내가 했던 말을 다시 입안에 집어넣고서 우뚝우뚝 씹어 삼키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관절 왜 이럴까. 어쨌서 오늘은 너와 나누는 말들이 이렇듯 모조리 이상스런 꼴로 변해 버리기만 하는 것일까.

⇒ 무심코 대답을 해 놓고 보니 그 대답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내가 한 대답은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새삼스럽다는 말이니, ‘너’가 ‘나’에게 번번이 신세를 끼쳐 왔다는 것인데, 사실 대답 자체가 적절하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니다.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 놓고도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자연스러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 놓은 말들이 계속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임을 이해해야 하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애매하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지금껏 거처를 옮겨 때마다 늘 그랬어.

⇒ ‘너’가 한 말이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신경이 쓰이고 죄의식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겠다.

손가락으로 성냥개비를 분지르며 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한 줌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는 녹슨 쇠붙이 내음과 비릿한 석탄 냄새가 스며 있었다. 커다란 등을 구부린 채 앉아 있는 네 모습은 마치도 야단을 맞고 난 어린애 같았다.[→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너’가 야단을 맞고 난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상처 입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잘못된 것도 없는 ‘너’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문을 품게 된다.] 피해라고…… 대관절 누가 피해를 주는 쪽이고 누가 당하는 쪽이란 말인가.[→ ‘너’는 남에게 자신이 피해를 준다고 하지만, 시대에 의해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너’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주는 쪽은 누구이고 당하는 쪽은 누구인지 ‘나’는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다.] 고향에 돌아와서까지 이렇듯 숨어 다녀야 하는 너는 누구며 태연한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나는 또 누구인가. 결코 장난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그런 식의 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불현듯 지독한 거부감을 느꼈다. 정말이지 너와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의 거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전에는 없었던 것

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들을 예전의 우리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나는 아까와 똑같은 의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 과거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현재 ‘너’와 ‘나’의 생활은 판이하게 다르다. ‘너’는 수배를 당하고 있어서 잡힐까 봐 숨어 다녀야 하고,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떠난 ‘나’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게 된 ‘나’의 마음은 아마도 점점 불편해졌을 것이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맨 뒤 칸으로 올랐다.

(중략)

너는 비스듬히 모자를 위로 올려 쓴 채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때 난 문득 네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음울한 그늘을 보았다. 그것은 예의 그 피곤함이었다.[→ ‘예의’라는 표현에서 이전에도 ‘나’가 ‘너’의 피곤함을 본 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넌 여전히 그 짙고 어두운 피곤함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후드득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이 지쳐 있는 네 눈빛이 새삼스레 가슴을 후벼 냈다.[→ ‘너’의 피곤함을 발견하고 ‘나’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 그 피곤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내가 서울에서 이 집 저 집으로 거처를 옮겨 다닌 것만도 자그마치 열네 차례였어. 때론 하룻밤 만에 쫓겨나다시피 한 적도 있었으니깐…… 정말이지 너무 지쳐어. 너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 어떤 날은 예라,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벌떡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어. 그렇게 너는 며칠 전 내게 말했다.

⇒ ‘너’가 털어 놓은 수배로 인한 도피 생활의 어려움과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너’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쳤음을 알 수 있다.

제복 차림의 승무원이 유리문을 밀고 나타났다. 그는 우리 쪽을 힐끔 쳐다보았을 뿐 곧 지나쳐 가 버렸다. 어깨에 두른 붉은 형짚에는 ‘공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써어 있었다. 우리는 무심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황황히 고개를 돌려 버렸다.

⇒ 승무원은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만 ‘공안’이라는 글씨 때문에 ‘너’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네가 여기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순임이는 알고 있지?

내 물음에 너는 한동안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아니…….

이윽고 너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개만 한 번 흔들었다.

어쨌서…… 누구보다도 가장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러고 싶었는데…… 서로를 위해서 아예 참기로 했다. 역시 모르는 것이 약이니까 말이야.[→ 순임에게 ‘너’의 근황을 알려 주지 않은 이유이다.]

너는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다. 아마 네 추측대로 순임이 역시 그들의 방문[→ ‘너’를 찾는 수사 기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을 것이라. 알고 있을 거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 기관 사람들의 추궁이다.] 순임은 그때 무어라고 대답했을까. 몰라요. 아무것도. 아마 그녀도 나처럼 그렇게 대답했으리라[→ 나에게도 ‘그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신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즉 ‘나’가 ‘너’의 수배 생활에 대해 미안해하며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임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아벨을 흙 속에 묻어 놓고 돌아와 피 묻은 두 손바닥을 뒤로 감추며 부인하는 카인처럼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차라리 우리에게겐 훨씬 편리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네

말마따나 모르는 것이 약이라니까. 어쨌든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허리를 곧추세우고 다리에 힘을 주려 애쓰면서도 웬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다. 몰라요. 모릅니다. 너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이 마치 결단코 침해받아서는 아니 될 무슨 엄청난 진리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사실이 부당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해하고 통분해해야 마땅하다는 듯이 나는 제법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명백한 무지는 때로 인간을 용감하게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과연 그랬다. 그때 난 나답지 않게 용감할 수 있었다.

⇒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나’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야기다. 정말로 ‘너’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제법 당당하게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무척 중요한 대목이다. 잘못된 것도 없는 ‘너’가 쫓기도록 만드는 시대, 이 불의한 시대에는 저항하지도 못하면서, 진짜로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정도의 말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쫓기는 ‘너’에 대한 죄책감과 불의한 시대에 대해 눈감는 비겁한 스스로에 대한 자조가,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주된 정서이다.

